

KOFIC 현안보고 2023_Vol.01

Korean Film Council

부산촬영소 건립의 사회·문화·경제적 효과

KOFIC 현안보고 2023_Vol.01

부산촬영소 건립의 사회·문화·경제적 효과

글 : 유승호(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 교수)
박정수(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혜영(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 박사)

발행인 박기용
발행일 2023년 2월 16일
담당부서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정책연구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30
전화 051)720-4700
팩스 051)729-4849
홈페이지 www.kofic.or.kr

ISBN 978-89-8021-229-3 (95680) (PDF전자책)
©영화진흥위원회, 2023

목 차

1. 서론	1
2. 전국 촬영스튜디오 현황과 특징	2
가. 전국 실내스튜디오 현황과 특징	2
나. 전국 실외스튜디오 현황과 특징	7
3. 부산시 영화영상 정책 및 산업역량	11
가. 부산시의 영화영상 정책 방향	11
나. 부산시의 영화영상산업 역량 분석	13
다. 부산촬영소 건립의 사회문화적 효과	20
4. 부산촬영소 건립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2
가. 분석방법	22
나. 분석의 전제	23
다. 파급효과 분석 결과	25
5. 결론 및 제언	28
참고문헌	30



1. 서론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성과는 국내 영상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하면서 시장의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생충>(봉준호, 2019)의 칸 영화제 및 아카데미 수상에 이어 한국영화의 글로벌 진출이 이어졌으며, <오징어 게임>, <킹덤>, <수리남> 등의 콘텐츠는 공개와 동시에 넷플릭스 순위권을 기록했다. 전세계 인기 콘텐츠 'TOP 100' 중 한국 콘텐츠가 8편에 달하고, 이 중 최근 3년 내 공개된 작품이 6편에 이르러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창출한 것이다(임석봉, 2022.6.29.).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은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제작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화 <승리호>는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찾지 못해 일산 킨텍스에서 대부분 촬영해야 했으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은 제작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스튜디오 인프라가 없어 전국 곳곳을 전전하며 촬영했다(김칭우, 2021.4.14.). <오징어 게임>은 대전 스튜디오큐브(한국콘텐츠진흥원 운영)에 축구장 1면 크기, 최대 높이 9m에 이르는 대형 스튜디오에 세트장을 구축함으로써 압도적인 미장센으로 글로벌 시청자들을 매료시켰는데, 이러한 대규모 세트 제작이 가능한 실내 촬영 공간이 없었다면 <오징어 게임>과 같은 시도는 어려웠을 것이다(박준호, 2022.3.6.).

국내의 콘텐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의 확장과 경쟁의 심화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비대면 산업으로서 영상콘텐츠의 소비를 급격하게 촉진하였고, 콘텐츠 제작사들에게 OTT 플랫폼은 기존의 질서를 벗어난 새로운 판로와 기회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상물 제작 및 제작업에 대한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전국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사업체 수는 2020년 기준 4,808개로 2017년 대비 528개 증가한 수치이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사업체 수의 증가는 제작 지원 및 인프라 지원에 대한 수요와 정비례하며 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영상제작 분야의 특성상 인프라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영상 콘텐츠 제작 인프라는 거의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 지역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충청 이남 지역은 '대전 스튜디오큐브'를 제외하면,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500평 이하의 중소규모 스튜디오가 4개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남부권역의 중심인 부산시는 영화를 중심으로 영상산업을 진흥하는 정책을 펼치며 영상도시로서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부산시를 부산국제영화제 등 문화적 가치가 높은 도시로 소개하면서 2023년 최고의 여행지 중 하나로 선정했는데(김성대, 2022.11.1.), 이는 부산이 영화 및 영상의 중심도시로 인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산은 영화도시 이미지가 확고하지만, 영상산업의 전통적 인프라는 미흡하고 영화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한계가 있다(윤지영 외, 2021).

영화산업 뿐만 아니라 OTT 플랫폼의 성장과 한국 영상 콘텐츠에 대한 제작투자 확대에 의해 부산 로케이션 촬영 지원 작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부산 내 실내스튜디오는 단 1개뿐이다. 이마저도 2022년 상반기에 이미 연말까지의 사용계약이 완료되어서, 신규 촬영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 대기하거나 수도권이나 타 지역 촬영소를 이용해야 한다. 부산시에서도 영화 및 영상산업을 선도하고 영상 도시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가 스튜디오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인프라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의 일환인 부산촬영소 건립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부산시 기장군에 건립 예정인 촬영소는 2005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이에 수반된 남양주종합촬영소의 부산지역 이전 계획이다. 부산촬영소는 영화·영상 제작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



해 다양한 기능들을 집적시킨 사업으로, 현재는 후반 제작시설까지 포함되어 있던 최초 계획보다는 축소되어, 실내스튜디오, 야외세트 등 영상 촬영에 필요한 공간과 경비실 등 제작지원시설 설립만을 포함하고 있다. 2023년 착공예정이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부산촬영소는 단순한 제작시설 설립이 아니라 한국영화산업 발전을 이끌 주요 인프라일 뿐만 아니라 영상제작의 허브로 기능하며 부산시 영상산업을 견인할 중심시설로 역할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전국 실내외 촬영스튜디오 현황과 부산시의 산업역량을 파악한 뒤, 부산촬영소 건립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산촬영소가 지역경제 및 영상산업의 발전을 이끌며 실질적인 영화제작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부산촬영소 건립이 지역의 인프라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역 영상산업 발전의 추동력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전국 촬영스튜디오 현황

가. 전국 실내스튜디오 현황과 특징

1) 실내 스튜디오 현황

기재영상제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의 실내스튜디오가 증가하고 있으며, VFX 기술 등 방송영상 제작 기술의 발전으로 사실감 높은 영상 연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후반 제작 작업의 적용을 위한 크로마키 활용이 용이하고 기후·소음 등 외부환경에 영향을 적게 받는 실내스튜디오 촬영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전국 실내스튜디오 현황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자체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영화 스텝들이 활용하는 커뮤니티인 ‘필름메이커스1)’ 내 최근 2년 이내에 게시글을 업로드한 실내스튜디오를 추가하여 수집·분석했다. 매각 후 운영이 중단되었으나 추후 운영 예정인 남양주종합촬영소를 포함해 현재 가동 중이거나 일시 중단된 촬영소만을 조사했고, 온라인 혹은 전화 등으로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철거된 촬영소는 제외했다. 또한 신규 구축 예정인 부산촬영소의 건립 규모를 고려하여 200평 미만의 협소한 규모는 제외하고 조사했다(단, 다양한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촬영소는 포함).

본 연구는 영상제작 허브로서의 부산 영상촬영소 기능과 지역 영상산업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므로 기본적으로 세트장 구축 및 영화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를 대상으로 선별했다. 이에 따라 방송 전용 스튜디오인 DMS를 포함해 지상파 방송 3사 전용 스튜디오는 조사에서 제외됐으며, 1인 방송·광고·공연·커머스 등에 특화된 스튜디오와 특정 세트나 소품들로 구성된 스튜디오, 용도 변경이 불가한 호리존 전용 스튜디오는 규모에 상관없이 제외됐다(단, 규모가 있는 벵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는 포함). 현황분석을 위해 촬영지명, 소재지, 건립시기, 운영주체, 시설규모, 주요시설을 수집했고 온라인으로 공개된 정보를 중심으로 수집하되 일부 미확인 정보는 직접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제공받았다.

1) “필름메이커스”, <https://www.filmmakers.co.kr/>



〈표 1〉 전국 영상제작 실내스튜디오 현황

순번	촬영지명	소재지	건립시기	운영주체	시설규모 (전체 부지면적)	주요시설
1	(주)부영주택 남양주종합 촬영소	경기	1991.1. (2019. 12. 인수)	(주)부영주택	1,336,409㎡ (405,000평)	실내스튜디오 400평(1동), 300평(2동), 235평(1동), 125평(2동), 춘사관(숙소), 야외촬영장 부지, 한옥세트, 민속마을세트, 판문점, 법정, 지하철, 수조(야외)세트
2	DIMA 종합촬영소	경기	2009.11.	학교법인 공산학원	1,154,321㎡ (349,800평)	실내스튜디오 600평(1동), 300평(1동), 100평(1동), 숙소 27실, 기타 편의 공간
3	전주종합촬영소	전북	2008.4.	전주시청	157,701㎡ (17,485평)	실내스튜디오 315평(1동), 240평(1동) 야외 촬영장, 편의 공간
4	난든집 나다 스튜디오	경기	2013.12.	개인	10,230㎡ (3100평)	실내스튜디오 450평(1동), 400평(1동), 220평(1동)
5	무대마당 스튜디오	경기	2009.1.	개인	12,000㎡ (3,600평),	실내스튜디오 500평(1동), 300평(1동) 주차장, 오픈세트 부지, 경량판넬 스튜디오-창고형
6	멩가노니 스튜디오	경기	2005.7.	개인	3,300㎡ (1,000평),	실내스튜디오 500평(2동), 주차장 등 편의시설, 경량판넬 스튜디오-창고형
7	박스터 스튜디오	경기	2014.1.	개인	19,800㎡ (6,000평)	실내스튜디오 360평(1동), 320평(2동), 140평(1동), 주차장, 경량판넬 스튜디오-창고형., 조명 바튼
8	불암촬영소 스튜디오	경기	1991.7.	개인	3,100㎡ (940평),	실내스튜디오 250평(1동), 주차장 등 편의시설, 경량판넬 스튜디오-창고형
9	덕일시스템 스튜디오	경기	2011.7. (인수운영)	개인	9,600㎡ (2,900평)	실내스튜디오 500평(2동), 주차장 등 편의시설
10	세트파워 스튜디오	경기	2005.10.	개인	4,950㎡ (1,500평)	실내스튜디오 300평(2동), 주차장, 지하철 세트
11	엠앤씨웍스 스튜디오	경기	2018.8.	개인	3,000㎡ (909평)	실내스튜디오 450평(2동), 대형 대기실(2), 중형 대기실(4), 냉난방기, 주차장, 상하이동 바튼 시스템
12	씨엠파크 스튜디오	경기	2006.10	개인	3,204㎡(970평), 3,207㎡(972평)	실내스튜디오 163평(1동), 300평(1동), 부대시설, 주차장, 상하이동 바튼시스템
13	아트서비스 스튜디오	경기	2003.10.	(주)아트 서비스	4,500평	실내스튜디오 400평(1동), 350평(1동), 250평(1동), DI 사업부, 숙소 28실, 기타 편의 공간
14	아트하우스 스튜디오	경기	2001.5	개인	13,836㎡ (4,193평)	실내스튜디오 300평(1동), 200평(1동), 주차장 등 편의시설
15	일죽 스튜디오	경기	2011	우리영상 아트센터	10,000㎡ (2,500평)	실내스튜디오 A동 500평(1동), B동 500평(1동), 자재 창고, 자체 방음, 냉난방, 분장-대기실, 주차장



순번	촬영지명	소재지	건립시기	운영주체	시설규모 (전체 부지면적)	주요시설
16	원방 스튜디오	경기	2012-2015	원방세안 스튜디오	약 13,000평	실내스튜디오 700평(1동), 600평(1동), 500평(1동), 450평(2동), 400평(2동), 응급실(100평), 경찰서(100평) 대기실, 분장실, 휴게실, 작업실
17	평택호 스튜디오	경기	2008.7	개인	5,098㎡ (1,544평)	실내스튜디오 400평(1동), 300평(2동), 주차장, 바튼설비 없음
18	포플라자 스튜디오	경기	1996.6	(주)포플라자	7,920㎡ (2,400평)	실내스튜디오 160평(1동), 85평(1동), 오픈세트(1동), 주차장, 수중 촬영장, 숙소, 촬영장비 렌탈, 편의시설, 전동식 조명 바튼
19	A&T 스튜디오	경기	2007.3.	(공동투자)	8,000㎡ (2,400평)	실내스튜디오 300평(1동), 200평(1동), 150평(1동), 주차장 등 편의시설
20	대전정보문화 산업진흥원	대전	2001	대전문화 산업진흥원	563,298.7㎡ (1,700평)	실내스튜디오 300평(1동), 200평(1동), 주차장, 냉난방, 바튼 시스템 완비
21	부산영화촬영 스튜디오	부산	2001.11	부산시청	23,946.98㎡ (7,300평)	실내스튜디오 500평(1동), 250평(1동) 주차장, 냉난방, 바튼 시스템
22	누리꿈스퀘어 영화촬영 스튜디오	서울	2007.11.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지상4층 규모 (약1,500㎡/468평)	실내스튜디오 500평(1동), 주차장, 바튼 시스템, 시설장비 렌탈
23	광주 CGI스튜디오	광주	2012.3.	광주정보 문화 산업진흥원	9,298㎡ (2,800평)	실내스튜디오 500평(1동), 주차장, 촬영장비 대여, 냉난방, 바튼 시스템
24	J&C 드라마캠프 스튜디오	경기	2000.10.	개인	11,249㎡	실내스튜디오 500평(1동), 400평(1동), 주차장, 냉난방 가능, 커피숍·편의점, 식당, 숙박시설
25	KBS 드라마센터	경기	2000.11.	KBS	168,995㎡	실내스튜디오 200평(2동), 250평(2동), 300평(2동), 특수촬영장 400평(1동) 주차장 등 편의시설
26	대전 스튜디오큐브	대전	2017.9	한국 콘텐츠 진흥원	66,115㎡(20,000평)	대형스튜디오 1,500평(1동), 1,000평(1동), 600평(2동), 특수효과 스튜디오 500평(1동) : 테크노크레인, 4K(UHD)카메라, 2축 와이어캠 특수시설 1,000평(1동) : 법정, 교도소, 병원, 공항내부 미술센터 620평(1동), 야외오픈 스튜디오 1,339평(크로마키 보드 구축)
27	아트뱅크 스튜디오	경기	2016.12.	법인대표 (건영입)	8,250㎡(2,500평),	실내스튜디오 400평(2동), 분장실4, 주차공간



순번	촬영지명	소재지	건립시기	운영주체	시설규모 (전체 부지면적)	주요시설
28	나무영상종합 촬영소	경기	2018.8.	법인대표 (문홍천)	33058.0㎡ (10,000평)	실내스튜디오 1,500평(1동), 500평(2동) 야외촬영장 9,000평(초대형 크로마키 120m X 16m), 자동 바톤, 냉난방 완비, 주차공간(200대), 분장실8개, 의상실 2개, 객실 (2인실-숙소6개)
29	제이영상종합 촬영소	경기	2019.11.	법인대표 (김지희)	-	실내스튜디오 630평(2동) 200평(1동) 자동 바톤, 냉난방완비, 주차 공간(200대), 분장실2개, 의상실 1개, 구내식당(80석)
30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경기	2013.1.	한국방송 통신전파 진흥원	10,702㎡ (3,237평)	실내스튜디오 500평(1동), 300평(1동), 150평(4동), 중계차 3대, 편집실 17개, 음향터빙실, 송출실 등
31	CJ ENM STUDIO CENTER	경기	2021.11.	CJ ENM	210,381㎡ (약 63,460평)	실내스튜디오 1600평(1동), 800평(6동), 500평(5동), LED Virtual Production, 멀티로드(크로마 벽체, 가설세트, 야외 특수 촬영공간) 오픈 세트(옥외환경, 단기 가설 세트, 관람 체험형 시설), Originals Lounge, 미술센터(SOOM), 주차장 및 편의시설
32	넥스트 스튜디오스	인천	2022.5.	동아수출 공사, (주)넥스트 스튜디오 스	1300평	실내스튜디오 500평(2동), 300평(1동) 식당, 테라스, 스텝실 4, 개인분장실 10, 단체분장실 2, 숙소 2, 전동 바톤, 냉난방 장치, 고속 공기순환장치 등
33	VA Studio	경기	2021	VA Corpora tion	11,265㎡ (약 3,408평)	XR스튜디오 약 125평(405㎡) 중형 볼륨 스튜디오 약 200평(643㎡) 대형 볼륨 스튜디오 약 330평(1,088㎡) 국내 최대 타원형 LED Wall 보유
34	고양아쿠아특 수촬영스튜디오	경기	2011.6.	고양산업 진흥원	25,905㎡ (약 7,836평)	대형수조(면적: 1,392㎡, 부피 5,568㎾) 소형수조(면적: 264㎡, 부피 792㎾) 복합형 실내스튜디오 전체 크기 1,934㎡ (586평) / 수조 크기(면적: 500㎡, 부피 1,900㎾)
35	국민대학교 나인스튜디오	서울	2015	협동조합 나인 스튜디오	-	호리존(18.5m x 20m x 8m) 대기실, 분장실3, 샤워부스, 주차장 전동 바톤(66ea)
36	RE100 당진영상 테마파크	충남	2021.1.	개인	21,157㎡ (약 6,400평)	실내스튜디오 500평(1동), 360평(1동), 150평(1동), 야외세트장 약 1700평, 분장실, 배우대기실, 식당, 미술팀 기획팀 전용 사무실



순번	촬영지명	소재지	건립시기	운영주체	시설규모 (전체 부지면적)	주요시설
37	봄내영화 종합촬영소	강원	2019.7.	개인	-	실내스튜디오 500평(1동), 오픈 스튜디오 400평, 4,000평(춘천·고성 위치), 화장실, 주방, 식당, 분장실, 의상실, 감독실, 대기실2
39	콜롬버스 스튜디오	경기	2021.12.	개인	-	실내스튜디오 약 240평(30m*26m*6m), 약 165평(18m*30m*8m) 각 1동, 스튜디오(공장형) 약 680평(25m*90m*15m) 대기실2, 휴게실, 스낵룸, 주차공간, 개별 전동배턴(14), 호리존
39	호야픽처스	경기	2022.5.	개인	-	실내스튜디오 약 165평(18m*30m, 호리존) 1동, 약 240평(30m*26m, 호리존, 세트제작 가능) 1동, 오픈 스튜디오(벽돌조 교회 리모델링) 220평, 개별분장실, 배턴시설, 호리존
40	운정 연 스튜디오	경기	2021.5.	개인	1,300평	실내스튜디오 300평(1동), 200평(1동), 사무동 120평, 분장실, 회의실, 대기실5, 층별 화장실, 주차장, 호리존, 냉난방시설, 전동식 바텐
41	가나상암 스튜디오	경기	2022.5.	(주)알반웍스	약 800평 (건물부지)	실내스튜디오 400평(1동), 300평형(1동), 약 700평(1동, 리모델링 중), 방음시설, 냉난방 및 배수시설, 게스트룸(100평), 파우더룸5, 자체식당
42	톤앤무드 스튜디오	경기	2012	개인	-	실내스튜디오 250평(호리존, 세트제작 가능) 1동, 180평(호리존,) 1동, 대기실, 파우더룸, 남녀화장실, 냉난방기, 차량진입가능, 바톤시설
43	마블링 스튜디오	경기	2022.3.	마블링이 엔엠 주식회사	약 1,000평	실내스튜디오 300평 1동(호리존, 세트제작 가능), 전동바톤, 냉난방시설, 주차장, 대기실, 분장실, 화장실, 자체 세트팀
44	문경 실내촬영 스튜디오	경북	2022.5.2.	문경시	-	실내스튜디오 1동(1,817㎡), 분장실·대기실 등 각종 부대시설

2) 실내 스튜디오의 특성

① 전체 실내스튜디오의 84%는 수도권 집중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전국 44개의 실내스튜디오 조사 결과, 단 7개를 제외한 37개(84%)의 스튜디오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파주, 김포, 남양주 등 서울 근교도시에서 밀집되어 있고 최근 오픈한 신규 스튜디오도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어, 영상제작 환경의 지역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7개의 비수도권 지역의 스튜디오 중 'RE100 당진영상테마파크'와 '봄내영화종합촬영소'만 개인이 운영하고, 그 외 '전주종합촬영소',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광주 CGI스튜디오', '대전 스튜디오큐브'는 모두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어 지역에서의 영상제작은 공공 제작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② 최근 5년 내 실내스튜디오 급증

최근 5년 내에 많은 수의 실내스튜디오가 오픈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개관한 스튜디오는 총 14개이며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2년 동안 11개의 실내스튜디오가 집중적으로 오픈했다. 이들 스튜디오는 ‘봄내영화종합촬영소’와 ‘RE100당진영상테마파크’, ‘문경 실내촬영스튜디오’를 제외하면 경기도 파주·일산·용인 등 수도권 있으며 영화·드라마 외에도 차량 광고나 커머스 촬영 등 다양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200~300평 규모의 호리존 스튜디오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③ 1,000평 이상의 대형 스튜디오는 전국에 단 3개

스튜디오의 규모 측면에서 살펴보면 44개 중 1,000평 이상의 대형 스튜디오는 ‘대전 스튜디오큐브’, ‘나무영상종합촬영소’, ‘CJ ENM STUDIO CENTER’ 단 3개만이 운영 중이다. 고품질 영상콘텐츠의 제작이 확대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많은 제작비용을 투자해 대규모 세트를 제작하여 촬영하는 작품도 크게 늘어나고, 이로 인해 대형 스튜디오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이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그러나 높은 초기 건축비용과 운영 예산의 부담으로 인해 국내 스튜디오는 500평(약 1,650m²) 이하의 중소형 스튜디오가 대부분이다. 특히 비수도권의 대형 스튜디오는 ‘대전 스튜디오큐브’ 단 1개밖에 없어 결국 대규모 작품은 수도권의 제작시설에 의존하기가 쉽고 이는 다시 영상산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강화하고 있다.

나. 전국 실외스튜디오 현황과 특징

1) 실외스튜디오(야외촬영지) 현황

전국 실외스튜디오(야외촬영지) 현황은 한국영화진흥위원회의 자체 조사자료와 한국영상위원회의 세트장 정보(<https://www.filmkorea.or.kr/>)를 활용하되 온라인 검색을 통해 새로운 촬영지를 추가했다. 실내스튜디오와 마찬가지로 현재 운영 중인 곳(일시 중단 포함)만을 조사했고,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운영관리 문제로 인해 방치 혹은 이미 철거된 곳은 조사에서 제외했다. 기본적으로 영화 촬영이 가능한 세트장과 오픈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조사했으며, 협소한 규모나 영상제작 외 특수목적(화보촬영 등)의 세트장은 제외했다.

〈표 2〉 전국 실외스튜디오(야외촬영지) 현황

순번	촬영지명	소재지	건립시기	운영주체	시설규모 (전체 부지면적)	주요시설
1	설악씨네라마 세트 (대조영세트)	강원	2006.12.	(주)한화 리조트	27,500평	고구려세트(민가, 관가, 저잣거리), 당나라세트(사합원, 황궁, 저잣거리, 측천무후 후궁, 인공연못 등)



순번	촬영지명	소재지	건립시기	운영주체	시설규모 (전체 부지면적)	주요시설
2	MBC 용인 대장금 파크 (MBC 용인 드라마아)	경기	1987.12. 매입 2004.12. 드라마 <신돈> 야외세트장 부지조성	(주)MBC	2,776,860㎡ (840,000평)	시대극 세트, 신라·백제·고구려·조선 시대의 양반집, 궁궐, 저잣거리 등 세트장(대장금 기념 세트장, 최우 사택, 양반집, 저잣거리, 포도청, 옥사, 무량수전 안양루, 인정전, 동지연못, 보평전, 만경전, 규장각, 동궁전, 중궁전, 열선각, 감찰부, 미실궁, 미실처소, 혜민서, 화기도감)
3	(주)부영주택 남양주 종합촬영소	경기	1997	(주)부영주택	82,500㎡ (25,000평)	운당(168평)7채, 취화선세트(기와26동, 초가31동), 지하철세트(2량), JSA 세트(판문각, 팔각정, 회담장 등 구성), 항공기 세트, 야외촬영장 부지 및 고정세트(법정),
4	KBS 수원제작센터	경기	2000.11.	KBS	168,992㎡ (51,210평)	구한말~1960년대 시대배경 건물 및 거리조성(러시아영사관, 한옥, 일식가옥, 서대문형무소, 동양극장, 염천교, 관공서, 전차고 등), <동양극장> 55동, <명성황후> 51동 등 100여동
5	고구려 대장간 마을	경기	2008	구리시	4,973㎡ (1,500평)	고구려시대 대장간, 거물촌, 연호 개채, 담덕채 및 물레방아, 화덕 등 철기시대 고구려 대장간마을 조성
6	고양 아쿠아특수 촬영 스튜디오	경기	2011	고양 산업진흥원	25,905㎡ (7,850평)	대형 수조(58*24*4, 1,392㎡), 소형 수조(24*11*3, 264㎡) 복합형 실내스튜디오(586평) 內 수조(25*20*3.8, 500㎡)
7	합천 영상테마파크	경남	2004	(주)합천 군청 개발사업단	66,000㎡ (약 2만평)	1920년대~1980년대 배경 시대물 오픈세트장 :청와대 촬영세트장, <각시탈(1910~45년)> 세트, 전쟁터, 군용기 전시세트, <빛과 그림자(1970~80년)> 세트, 우체국, 버스터미널, 기차세트, 부속시설 등 * 150,000㎡ 규모의 분재공원과 정원테마파크 조성
8	창원 해양 드라마 세트장	경남	2010	창원시	9,947㎡ (3,000평)	가야시대 야철장, 포구, 저잣거리, 가야관, 김해관 등 건물25동, 선박2척 등 총 6개 구역 25동의 건축물. 각종 무기류 등 소품 전시
9	하동 평사리 최참판댁 (토지 세트장)	경남	2001	하동군	9,529㎡ (2,890평)	한옥 14동(건축면적508㎡), 조선후기 생활모습을 재현한 <토지>세트장 * 관광객 숙박가능



순번	촬영지명	소재지	건립시기	운영주체	시설규모 (전체 부지면적)	주요시설
10	문경세계 오픈 세트장	경북	2000	문경 관광진흥 공단	70,000㎡ (약 1,670평)	광화문, 근정전, 사정전, 강녕전, 교태전, 동궁, 쉼네각사, 양반촌, 저잣거리, 초가집, 기와집 등 총 130동의 세트 건물
11	문경 가은 오픈 세트장	경북	2006	문경시청	43,999㎡	제1촬영장: 평양성, 고구려궁, 신라궁, 고구려마을, 신라마을, 성내 마을 제2촬영장: 안시성, 성내마을 제3촬영장: 요동성, 성내마을
12	상주 드라마촬영장 (세트장)	경북	2001	상주시	12,611㎡ (3,820평)	조선시대 민가(초가집 14동, 정자 2동), 대장간, 물레방아 등
13	순천 드라마촬영장 (소도읍 드라마세트장)	전남	2005	순천시	39,669.6㎡ (12,000평)	1960~80대의 서울 관악구 봉천동 달동네(91동), 서울 변두리, 거리 등 시대별로 3개 마을 200여채 건물 재현
14	나주 영상테마 파크	전남	2005.10.	나주시	141,300㎡ (약45,000평)	삼국시대 배경 고구려 국내성, 졸본 부여궁, 너와집 거리, 철기제작소, 왕자궁 등 95동의 시설물 의상체험실 및 전통놀이 체험장도 운영
15	청해포구 촬영장 (장보고드라마 세트장)	전남	2004	완도군	47,701㎡ (14,450평)	2개소에 분산조성 (완도읍 대신리)청해진 본진과 객관, 저잣거리, 초가마을, 장보고 변영건물 12동, 선착장 등 (군외면 불목리)객사, 민가, 당나라 신라방, 군사시설, 수로 등 건물 42동
16	부안영상 테마파크	전북	2005.7.	부안군	150,000㎡ (약 45,000평)	조선후기의 황궁 경복궁, 창덕궁, 기와촌(양반가, 서원, 서당, 전통찻집), 평민촌(도요촌, 한방촌, 목공 및 한지공예촌 등), 저잣거리.방목장, 연못, 성곽 등 ** 현재 임시휴장중
17	전라 좌수영 세트장	전북	2005	부안군	16,530㎡ (5,000평)	조선 선조시대 동헌, 군관청, 누각과 정자, 기와집, 초가집 등 총 21동
18	익산 교도소 세트장	전북	2005	익산시	15,162㎡ (4,600평)	교도소 옥사 2동, 정문, 담장, 망루(연면적2,613㎡), 분장실 등 부대시설
19	남원 춘향테마파크 (춘향년 촬영장)	전북	2004	남원시	35,000평	춘향테마파크 내 민가세트(초가) : 5개 마당(만남, 맹약, 사랑·이별, 시련, 축제의 장), 꽃동산, 건축물 23동, 모형 14종, 의장 8종, 기타 36점
20	구)서도역 영상촬영장	전북	2006	남원시	-	구)전라선 서도역사



순번	촬영지명	소재지	건립시기	운영주체	시설규모 (전체 부지면적)	주요시설
21	서동요 세트장	충남	2005	부여군 시설관리 공단	24,286㎡ (약 1만평)	백제왕궁, 신라왕궁, 왕비 처소, 후궁 처소, 왕궁 서고, 왕궁마을, 귀족의 집, 태학사, 공방, 하늘재 마을 등 42동(13,530㎡), 기타부대시설(9,570㎡)
22	온달 드라마 세트장	충북	2007	단양 관광공사	1만8000㎡	궁궐, 후궁, 주택 등 50여동의 고구려 건물과 저잣거리 등 온달관광지(온달산성, 온달동굴 등)내 위치, 촬영 후 관광시설로 운영(유료관람 시설) *매년 10월 '온달문화축제' 개최.
23	논산 선사인랜드	충남	2018.11.	논산시	32,497㎡ (약 9,830평)	선사인 스튜디오: 1900년대 초반 개화기 촬영지(근대양식 건축물 5동, 와가 19동, 초가 4동, 적산가옥 9동) 1950스튜디오: 1950년대 서울 을지로 배경 촬영지 (국밥집, 자전거포, 쌀집, 약국, 극장, 양장점 포함 거리배경, 상설 건물이 아닌 가설 건물)
24	마성 오픈 세트장 (환혼 촬영장)	경북	2021	문경시	13,829㎡	정진각·무도관 등 세트 건물 31동 *21.12 오픈세트장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관광지로 운영 계획

2) 실외스튜디오의 특성

① 지자체의 지원으로 관광산업과 연계

조사된 24개의 야외 촬영지는 수도권에 입지한 5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국 각지에 구성되어 있었다. 야외 촬영지는 대규모 세트장을 구축하며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고, 목적에 따라 바다나 산 등 자연배경을 요구하기에 수도권보다는 다양한 입지 조건을 갖춘 지방에 설치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각 지역 지자체의 강력한 수요와 지원이 있었기에 유치된 것이다. 조사된 야외촬영장 24곳 중 19곳은 2000년~2010년 사이에 건립되었는데, 이는 드라마 <태조 왕건(2000)>의 성공으로 경북 문경시가 관광 특수를 누리게 되면서 2000년대 초 드라마·영화 세트장 붐이 일어났던 것에 기인한다. 드라마·영화의 흥행 성공은 세트장이나 촬영지의 가치를 높이게 되었고 이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계기가 된 것이다.

지자체들은 제작사의 요구에 따라 촬영의 편의를 제공했고 세트장 조성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기도 했다(김한도, 2008). 이로 인해 일반 부지가 아닌 관광 목적의 부지인 도립공원(문경세계 오픈세트장), 관광단지(상주 드라마촬영장, 온달드라마세트장)나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신라밀레니엄파크), 박물관 부지(단양 가은오픈세트장) 내에 조성되며 지자체 관광산업 계획의 일부가 되었다. 애초에 야외 촬영지는 관광을 고려하여 설치하였기에 촬영 종료 후 관광시설로 운영되며 지역에 따라 지자체 행사나 축제를 함께 개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일부 시설을 숙박시설로 제공하며 관광객의 호응을 얻고, 인근 테마파크와 함께 조성해 지역관광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지역 타 시설과의 연계하여 통합



입장권을 발급하기도 한다.

② 종영·홍행 후 운영부실 발생

지역의 야외 촬영지 혹은 세트장들은 드라마 종영·영화 흥행 이후 1~2년 동안은 입장료 수입 등으로 단기간의 관광 흥행을 누리다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노후화 및 유지보수, 관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방치되다가 철거되는 것이다. 드라마 <천국의 계단>과 <칼잡이 오수정> 촬영지로 유명했던 인천 무의도 영상단지는 결국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을 폐쇄했고(이정용, 2017.9.29.),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의 배경인 부산 석불산 영상랜드는 일본식 건축물과 시설물 등으로 일본문화 촬영장으로 조성되며 영상특구로 지정되기도 했으나, 촬영 수요가 없고 관광객 감소 및 관리 문제 등으로 철거됐다(김종철, 2019.05.29.). <육망의 불꽃>을 촬영한 울산 간절곶 드라마세트장도 관광객 감소로 유지에 부담을 느낀 지자체가 시설을 임대했으나 안전문제로 철거가 결정됐고 이후 임대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방치 상태가 되었다(이왕수, 2021.11.16.). 드라마 <선덕여왕>, <대왕의 꿈>, 영화 <관상> 등을 촬영한 신라 밀레니엄파크는 운영회사의 파산으로 인해 경매로 넘어갔고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김대엽, 2022.7.24.). 야외 촬영지의 운영을 위해 관리비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관리 소홀로 인해 폐허가 되다시피 한 세트장들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③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활용과 운영 고려 필요

지자체들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활용과 운영을 고려하여 유지하고 있다. 논산 선사인랜드는 논산시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주)화앤담픽쳐스와 (주)SBS A&T가 공동 투자하여 촬영장을 조성한 국내 최초의 민관합작 드라마 테마파크로, 계획부터 관광 자원화를 고려하여 역사적 고증을 활용한 상설 스튜디오로 조성했고 지자체와 민간이 이원화해 운영 수익을 높이고 있다. 또한 스튜디오 개장 후 3년간 영화·드라마·다큐멘터리 등 작품 45편이 촬영되었는데, 촬영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시설이나 가설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 스튜디오로서의 활용도도 높이고 있다(이승륜, 2021.6.20.).

3. 부산시 영화영상 정책 및 산업역량

가. 부산시 영화영상 정책 방향

부산시는 영화·영상산업 육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영화·영상분야를 육성·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세계적인 영화도시라는 브랜드를 구축했다. 다른 지자체보다 일찍이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2008.11.5.)」를 발표하고 영상산업을 지원해 왔다. 해당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재원확보, 관련 기업 유치와 전문인력 육성 등이 담겨있다. 또한 '시장은 영상산업의 육성과 영상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국내외 영상 제작자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후 부산광역시시는



2014년 아시아 최초 '유네스코 영화 창의 도시' 지정 및 2021년 3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영화 분야 부의장 도시 선정 등 국제적 차원의 영화 창의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해 왔다.

부산영상위원회는 2016년 「부산영화·영상산업 활성화 발전전략 로드맵」을 발표해 부산 영화·영상산업의 선순환 구조와 자생적인 산업 기반 마련, 성장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했고, 2021년에는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급속하게 변화된 영화·영상산업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VISION 2025」를 발표했다. 「VISION 2025」에는 영화·영상산업을 주도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미션과 영화·영상 산업도시 부산을 완성하는 전문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4대 목표 및 12개 전략과제가 설정되어 있다.

4대 목표 중 첫 번째 목표는 '지역영화·영상산업 체질 개선 주도'이며, 이에 대한 전략과제는 기획개발·제작 지원사업 개편 및 고도화 추진, 지역 영화 유통·배급·마케팅 전략 모색, 투 트랙 인재·기업 육성 전략 수립이다. 두 번째 목표는 '영화·영상도시 경쟁력 강화'로 전략적 촬영지원·유치 계획 수립, 온라인 신유형 콘텐츠 제작지원 추진, 선진 영상기술 도입 및 기술인력 육성을 전략과제로 제안했다. 세 번째 목표는 '전사적 자율 경영체계 혁신'이며 경영관리 효율화, 지원사업 관리 운영 체계 혁신, 신뢰기반 마케팅 강화를, 네 번째 목표인 '지역상생·협력모델 개발' 하에 영화·영상산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기관연계 협력모델 발굴, '영화도시 부산' 브랜드 확장이 전략과제로 제시되었다(차민철, 2021.12.).

2021년 5월에는 부산의 영화·영상 발전 정책을 개발하고 실질적 정책 추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화영상정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영화·영상분야의 민·관·학 협치와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부산의 영상산업발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영상문화와 영상산업 정책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제규정·제도 분과, 페스티벌 분과, 산업분과, 문화·교육 분과 등 4개 분과위원회로 20명 이내에서 구성된다.

최근 부산시는 콘텐츠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며, 영화·영상 콘텐츠를 역점 6대 콘텐츠 분야이자 고유 역량으로 제시했다. 2022년 4월 제2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문화 콘텐츠산업 발전 비전인 'K-콘텐츠 Ready A.C.Tion'을 발표하고, 5년간 총 4,915억 원을 투입해 고유 역량 강화(Advancement), 융복합 활성화(Convergence), 디지털전환 대응(Transformation)이라는 3대 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번 발전전략에 영화·영상 콘텐츠산업의 역량 강화를 포함하고 있는데, 금년 중 '영상도시 발전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고, 부산제작 영화·드라마 및 로케이션 지원을 2배 가까이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운드 편집실 추가구축, 우수 컴퓨터그래픽(CG) 기업 유치를 통해 영상후반작업 제반시설을 완비하고, 센텀시티 및 서면에 편중된 미디어 교육·제작 인프라를 서부산권과 원도심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22.4.14.).

부산시는 지역의 주력산업을 기존의 영화·영상 중심 콘텐츠산업에서 지능정보서비스산업으로 개편해 7대 전략사업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화 촉진으로 새로운 성장가능성과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과거 정책의 고유 영역에 머물지 않고 영상산업 특성상 기술과 융합되는 측면을 보다 강화하여 지능정보서비스산업 전반의 육성과 영상산업을 결합시키고 있는 것이다. 영상산업은 필연적으로 기술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 왔고, 첨단기술의 영향이 기획-제작-유통 그리고 시청행태까지 전 영역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부산시의 지능정보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은 분명하다.



〈표 3〉 부산시 7대 전략사업

구분	내용
스마트해양산업	친환경스마트선박, 항만물류, 해양바이오, 수산가공
지능형기계산업	정밀기계, 생산자동화, 스마트팩토리, 하이테크소재, 로봇
미래수송기기산업	자율주행차, 항공, 드론
글로벌관광산업	MICE, 특화관광(의료, 뷰티, 해양레저)
지능정보서비스산업	서비스플랫폼(ICBM), 콘텐츠(영화영상, AR/VR, 게임), 스마트금융(핀테크, 블록체인)
라이프케어산업	스마트 헬스케어(의료기기, 의료서비스, 고령친화용품, 방사선의과학), 리빙 케어(기능성식품, 향노화, 화장품), 라이프 스타일(디자인, 신발, 패션의류)
클린테크산업	에너지시스템(태양광, 풍력, 수력), 에너지저장 및 서비스(ESS, 스마트그리드, 파워반도체), 환경대응(재난안전, 원전해체, 기후변화)

나. 부산의 영화영상산업 역량 분석

1) 부산의 기업 역량

부산은 영화도시인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영화분야의 사업체수가 많은데, 지역별 지역 내 콘텐츠 규모를 조사한 <2020 지역콘텐츠산업 및 창작자 실태조사>(한국콘텐츠진흥원, 2021)에 따르면 부산에서의 영화분야 사업체수 57개로 부산 지역 내 콘텐츠 규모에서 2순위로 집계됐다. 콘텐츠 전 분야에서 상위권에 있는 경기를 제외하면 부산이 영화분야 사업체 수가 가장 많으며, 특히 다른 권역의 사업체수가 한 자리수 인 것과 비교하면(제주도 제외) 괄목할 만한 수치라 할 수 있다. 방송 사업체는 28개로 충남 다음으로 지역에서는 많은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부산을 제외한 다른 권역에서는 영화분야 사업체 수가 순위권에 들지 않았다는 점과 영화·방송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도 타 지역대비 높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부산지역이 실질적으로 영화·영상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지역별 영화방송 분야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지역	영화방송분야 사업체 현황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영화	방송	영화	방송
부산	57	28	470	209
대구	4	7	16	150
인천	9	3	73	13
광주	5	8	30	63
대전	6	5	27	18
울산	1	7	2	40



지역	영화방송분야 사업체 현황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영화	방송	영화	방송
경기	62	48	617	809
강원	7	13	26	92
충북	2	8	6	34
충남	3	31	31	184
전북	8	8	30	28
전남	2	13	8	61
경북	2	21	9	71
경남	2	2	8	70
제주	16	17	67	60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지역콘텐츠산업 및 창작자 실태조사」

부산광역시의 사업체조사를 활용해 영상제작과 관련된 산업인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광고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현황을 확인해 산업역량을 파악했다. 최근 업데이트 자료가 2020년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관련 업종의 사업체와 종사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2020년도의 사업체수는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217개에서 530개, ‘광고업’ 733개에서 1,558개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방송업’ 역시 28개에서 41개로 급증했다.

〈표 5〉 2016~2020년 부산광역시 영상제작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204	2029	209	2107	207	2090	217	1558	530	1727
방송업	26	767	27	841	29	775	28	821	41	788
광고업	630	2180	654	2138	704	2301	733	2572	1558	3772

* 출처: 부산 공공데이터 포털

2) 산업특화도 분석²⁾

부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촬영소 설립에서 비교우위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영화·영상산업 성장에 필요한 산업역량이 있는지 검토하고자 산업특화도 분석을 실시했다. 산업특화도 분석은 매출액이나 종사자 수, 기업체 수 등을 기준으로, 전국 대비 특정 지역에 어떤 산업이 비교우위를 가지는지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활용했고, 분석 범위는 촬영소와 관련된 영상산업에 해당 가능한 5개 업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분석 기간은 최신의 통계자료 확보가 가능한 2020년으로 설정했고, 분석

2) 자료는 통계청의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활용



대상 지역은 서울과 대전을 7개의 특별·광역시(세종시 제외)와 경기도로, 총 8개 지역을 비교했다.

여기에서는 한 산업의 전국적 종사자 수 비중과 특정 지역에서의 종사자 수 비중을 비교함으로써 당해 산업에 대한 그 지역의 상대적 특화 정도를 나타내는 입지계수(LQ)를 파악했다. 입지계수의 산출식은 아래와 같으며 X_{ij} 는 j 지역의 i 산업 종사자 수, X_j 는 j 지역 총 종사자 수, X_i 는 i 산업의 전국 총 종사자 수, X 는 전국 총 종사자수를 의미한다.

$$\text{입지계수, } LQ_{ij} = \frac{X_{ij}}{X_j} / \frac{X_i}{X}$$

분석 결과, 부산지역의 영상산업 분야의 입지계수는 0.60으로 관련 산업 대부분이 밀집된 서울(2.39)과는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만, 대전(0.86), 인천(0.79), 경기도(0.76)와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입지계수가 1보다 큰 업종은 전국 동일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분석 결과를 보면, 서울 지역 이외에는 입지계수가 1보다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 없다.

〈표 6〉 2020년 부산지역 영상산업 입지계수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영상촬영소 관련) 영상산업 분야	2.39	0.60	0.50	0.79	0.46	0.86	0.39	0.76	
제작 관련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75	0.36	0.42	0.35	0.28	1.03	0.22	0.85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2.89	0.42	0.35	0.45	0.64	0.39	0.16	0.64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2.27	0.62	0.63	0.50	0.37	1.27	0.23	0.99
촬영소 관련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2.02	0.85	0.81	0.80	0.82	0.81	0.60	0.65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1.86	0.89	0.43	1.78	0.45	0.66	0.68	0.66
서비스산업 전반	1.18	1.05	1.01	0.97	1.01	1.10	0.80	0.94	
전체 산업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영화 및 드라마의 제작이 활발해지면서 영상촬영소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 현실에의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의 집중 완화나 지역적 균형발전도 산업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이슈일 것이다. 그럼에도 영상촬영소 건립은 향후 활용 측면에서 영상산업 관련 분야의 매출액이나 종사자 수, 그 자체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지역별 매출액과 종사자 수 비중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부산지역이 서울지역과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2020년 영상산업 분야의 지역별 매출액 비중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작 관련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0.8%	1.9%	1.1%	1.5%	0.5%	2.0%	0.5%	18.3%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81.1%	1.2%	0.5%	1.1%	0.7%	0.6%	0.2%	11.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56.3%	4.2%	1.8%	1.6%	1.1%	2.7%	0.4%	26.0%
촬영소 관련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53.8%	4.3%	3.1%	4.2%	2.3%	2.2%	1.0%	14.7%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33.9%	5.5%	2.0%	6.4%	1.6%	2.9%	3.1%	19.4%
(영상촬영소 관련) 영상산업 분야		63.6%	2.8%	1.5%	2.5%	1.0%	2.0%	0.9%	17.6%

* 출처: 통계청,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활용

〈표 8〉 2020년 영상촬영소 관련 영상산업 분야의 지역별 종사자 수 비중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작 관련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5.0%	2.2%	1.7%	1.7%	0.7%	2.9%	0.5%	20.2%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8.5%	2.6%	1.4%	2.2%	1.7%	1.1%	0.4%	15.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53.7%	3.8%	2.6%	2.4%	1.0%	3.5%	0.5%	23.5%
촬영소 관련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47.8%	5.3%	3.3%	3.9%	2.2%	2.2%	1.3%	15.4%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44.1%	5.5%	1.7%	8.7%	1.2%	1.8%	1.5%	15.7%
(영상촬영소 관련) 영상산업 분야		56.6%	3.7%	2.0%	3.8%	1.2%	2.4%	0.8%	18.1%

* 출처: 통계청,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활용

3) 지역별 로케이션 촬영지원 현황

2000년대 이후 각 지자체는 지역발전을 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화·드라마 촬영 유치에 큰 관심을 보이며 각 지역의 영상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해 왔다. 지역 내 영화·드라마 촬영 유치가 기업이나 산업단지 유치처럼 대규모 예산과 행정력이 소비되지 않고도, 단기간에 지역의 소득 증대와 홍보를 이룰 수 있으며 지역 관광산업과도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길훈·정진욱, 2010). 이에 따라 각 지역 영상위원회의 로케이션 지원사업은 지역 내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홍보를 위한 핵심적인 제작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 해왔다(김길훈·김진, 2009; 김도학 외, 2011).



부산은 산, 바다, 강 등 천혜의 자연요소와 함께 각종 상업지구와 공업지구, 1980년대 분위기의 원도심, 고층 빌딩이 밀집한 도심 등이 혼재되어 있어 다양한 로케이션 촬영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이다. 특히 부산 영상위원회는 촬영 장소 소개는 물론이고, 제작진이 머물 수 있는 숙소나 식당 정보를 알려주고, 영화의 후반작업까지 아우르는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촬영하기 좋은 도시 부산’의 명성을 증명하고 있다(김은영, 2022.10.3.). 또한, 부산은 1996년 국내에서 최초로 시작한 영상위원회의 로케이션 지원 서비스가 구축되어 있고 영상제작 기반시설이 있어 촬영 작품이 많다.

① 부산의 촬영지원 현황

최근 5년간 부산 로케이션 촬영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에서의 영상제작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에서 촬영한 작품은 총 278작품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극도로 제한되었던 2019~2020년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촬영 작품 수가 줄었으나 2021년 이후에는 상승세를 회복했다. 장르별로는 장편영화가 131편, TV드라마가 68편으로 가장 많았고 OTT 30편, 웹드라마 28편, TV다큐 분야에서 21편이 지원받았다. 특히 OTT 작품의 촬영이 급증하였는데,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단 1작품, 2작품뿐이었으나 2021년에는 11작품, 22년에는 16작품을 촬영하였다. OTT 시장이 증가하면서 부산영상위원회에서는 OTT 플랫폼과의 협업을 강화한 것이다.

〈표 9〉 부산 로케이션 촬영지원 현황

구분	촬영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장편영화 (다양성영화·다큐멘터리 포함)		33	28	22	22	26	131
TV드라마		13	13	11	19	12	68
OTT		-	1	2	11	16	30
웹드라마		6	3	5	4	10	28
TV다큐		8	2	4	4	3	21
합계		60	47	44	60	67	278

* 출처: 부산영상위원회 자료 제공

부산 촬영에 대한 해외 제작사의 관심도 높아졌다. 최근 5년간 부산영상위원회에서 로케이션 촬영을 지원한 총 278작품 중에 19개 작품은 해외 국적의 제작사이다. 국적별로 보면 일본 4편, 미국 3편, 싱가포르 2편, 영국 2편 그리고 스페인, 크로아티아, 캐나다, 러시아, 프랑스, 미얀마, 중국, 인도네시아가 각각 1편씩을 촬영했다. 이는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예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이후에는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었기에 지원 작품 수 자체가 급감한 것이지만, 2018년 예산(19억 5,200만 원)과 2019년 예산(17억 8,000만 원) 차이가 크지 않음에 비해 촬영된 작품의 수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표 10〉 국적별 부산 로케이션 촬영 현황

구분 촬영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러시아				1		1
미국	1		1	1		3
미얀마		1				1
스페인	1					1
싱가포르	2					2
영국	1	1				2
인도네시아	1					1
일본	3	1				4
중국	1					1
캐나다	1					1
크로아티아	1					1
프랑스		1				1
한국	48	43	43	58	67	259
합계	60	47	44	60	67	278

* 출처: 부산영상위원회 자료 제공, 연구자 재작성

② 지역별(대전·전주·문경) 촬영지원 현황

부산지역과 지역 내 스튜디오가 있는 대전과 전주, 그리고 최근 실내외 촬영지로 각광받는 문경 지역의 로케이션 현황을 비교하여 보았다. 우선 대전에서 최근 5년간 로케이션 촬영 지원을 받은 작품은 총 111작품으로 영화 57편, 드라마 54편이며 모두 국내작품이다. 총 2동으로 운영되는 대전 영화촬영스튜디오는 드라마보다 장편영화 촬영이 더욱 활발했으며 가동일은 매년 늘어나 2018년에는 200일 내외였으나 최근 2~3년 사이에는 거의 모든 일정이 예약되어 있다.

〈표 11〉 대전 로케이션 촬영지원 현황 (대전영상위원회 자료제공)

구분 촬영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영화	15	12	9	10	11	57
OTT/드라마	17	7	8	12	10	54
합계	32	19	17	22	21	111

* 출처: 대전영상위원회 자료 제공



〈표 12〉 대전 영화촬영스튜디오 운영현황

촬영연도	작품 수(편)				가동일 수	
	영화	OTT/드라마	기타	소계	A	B
2018	6	-	-	6	210	171
2019	10	1	-	11	264	302
2020	9	2	-	11	296	330
2021	4	4	-	8	346	353
2022	4	2	-	6	299	358

* 출처: 대전영상위원회 자료 제공

전주도 로케이션 촬영 지원과 스튜디오 이용이 모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주 지역에서의 로케이션 촬영은 총 76편으로 장편영화 32편과 드라마 44편이 제작되었고 모두 국내 작품이다. 전주 영화종합촬영소에서 촬영한 작품 역시 대다수 장편영화이며, 2개의 스튜디오의 가동 일 수는 거의 1년 이고 야외세트장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었다. 일부 장편영화가 전주지역 로케이션과 스튜디오를 모두 활용했으나, 대다수 작품은 로케이션 촬영에서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영화 및 드라마 제작에 실내스튜디오를 활용하게 되는데, 전주 영화종합촬영소는 매년 거의 1년 내내 가동되고 있어 전주는 부산에 비해 로케이션 촬영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전주 로케이션 촬영지원 현황 (전주영상위원회 자료제공)

구분 / 촬영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장편영화	4	9	4	10	5	32
드라마	5	4	12	12	11	44
합계	9	13	16	22	16	76

* 출처: 전주영상위원회 자료 제공

〈표 14〉 전주 영화종합촬영소 운영현황

촬영연도	작품 수(편)				가동일 수		
	영화	OTT/드라마	기타	소계	J1스튜디오	J2스튜디오	야외세트장
2018	10	-	1	11	305	198	220
2019	9	-	-	9	321	345	102
2020	5	-	1	6	310	225	39
2021	6	-	2	8	296	306	292
2022	4	-	1	5	352	314	240

* 출처: 전주영상위원회 자료 제공

문경 실내촬영스튜디오는 2022년 4월 28일에 준공했으나, 이미 2작품이 각각 5~6월, 8~12월까지 대여해 이미 2022년은 예약이 종료된 상태이다.



다. 부산촬영소 건립의 사회문화적 효과

부산은 영상산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며 영상도시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산업적 전략을 추진해 왔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산업이 제대로 성장 및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자원 확보가 중요한데, 부산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지방 이전 계획과 관련해 촬영소 입지를 추진하였으나 장기간 지연되면서 인프라 자원의 부족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기획-제작-유통으로 이루어지는 영화·영상산업 전반의 생태계 확보에서 부족함을 겪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영상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영상산업에 대한 지원을 펼치고 부산국제영화제라는 아시아 최대 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내 실질적인 제작환경으로서 촬영소와 후반 제작시설은 부족한 상태라 영화·영상 콘텐츠산업 확장에서 일정한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OTT의 확산으로 한국 영화, 드라마 등 한국 영상콘텐츠의 제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실내스튜디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실감 높은 연출을 위해 하이퀄리티의 세트장이나 LED Wall 등을 활용한 버추얼 프로덕션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형 스튜디오 이용이 필요한 상황이다(박종진, 2022.7.5.). 그러나 실내스튜디오 현황에서 보다시피 단 7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스튜디오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1,000평 이상의 대형 스튜디오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단 1개밖에 없어 사실상 지역에서 대규모 작품을 촬영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부산촬영소의 설립은 상업적 목적에서의 촬영 시설 유치 이상으로 사회문화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첫째, 부산촬영소의 건립은 단순 시설의 이전이 아닌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밀화된 영화·영상산업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 효과가 있다. 실내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영화 및 드라마 제작사, 광고 등 영상 관련 제작사와 인력, 포스트 프로덕션 시설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영화·영상 산업은 사실상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종의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산촬영소 건립을 통해 지역에 영상제작 인프라를 제공하고 지역 사업체 및 로케이션 촬영과의 연계 등 지역 자원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산촬영소의 지역균형발전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콘텐츠 진흥정책의 실현으로 볼 수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고 계획의 실천을 강조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완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정책과 K-콘텐츠 정책을 펼치고 있다. 콘텐츠 진흥정책은 지역균형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국정운영에 있어 주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을 위한 내용에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의 지방 유치 지원이 있는데,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에는 영상산업의 핵심인 영화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방송(산업), 광고 등이 포함되어 있고, 콘텐츠 정책에 영상제작 인프라 구축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정책과 부합하는 측면이 크다.

셋째, 부산촬영소는 그 자체로 지역의 이미지 홍보는 물론 관광 효과를 유발하며 산업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어 연관산업 전반의 생태계 구축에서 산업적 허브로서의 역할을 한다. 부산촬영소는 한국영화산업 발전을 이끌 주요 인프라일 뿐만 아니라 영상제작의 허브로 기능하며 부산시 영상산업을 견인할 중심 시설로 역할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장 밀접하게는 영상물 촬영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경제 활동이 파생되는 로케이션 산업의 효과이다. 지역에서 로케이션을 할 때 현지 체제 시 소비하는 비용이라는 직접적 경제효과 이외에도 영상산업의 후반 제작 부문의 활성화, 제작 스태프 및 엑스트라 인력양성, 지역에 대한 인식 제고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최정수, 2007). 로케이션 촬영은 제작비와



일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의 실내스튜디오와 연계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전 스튜디오 큐브’,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등 지역의 중대형 실내스튜디오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여료가 저렴하고 야외촬영지 및 지원시설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대전 지역의 로케이션 지원 현황에서도 로케이션 촬영과 실내 스튜디오 대관을 동시에 한 작품들이 많다. 일반적으로 실내스튜디오 대관은 장기 대여를 하기에 로케이션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역 내 소비뿐만 아니라 로케이션 산업의 영향(지역 산업 및 인력, 지역 인식제고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부산은 산, 바다, 강 등 천혜의 자연요소와 함께 각종 상업지구와 공업지구, 1980년대 분위기의 원도심, 고층 빌딩이 밀집한 도심 등이 혼재되어 있어 다양한 로케이션 촬영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이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실내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는 대전, 전주에 비해 월등히 많은 로케이션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부산촬영소가 건립된다면 타 지역에 비해 파생되는 경제활동 및 로케이션 산업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넷째, 촬영소의 설립은 지역 홍보를 포함해 최근의 관광 트렌드인 영화, 드라마 등의 콘텐츠 배경이 된 곳을 찾아가는 콘텐츠 투어리즘도 활성화할 수 있다(정수희·이병민, 2020). 런던과 옥스퍼드 지역의 ‘해리포터 투어’나 베로나의 ‘줄리엣의 집’ 사례가 대표적이며,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이미지가 관광의 대상이 되며 참여를 통해 관광의 만족을 높이게 된다. 지역 내 영상 콘텐츠의 촬영 유치는 대규모 예산과 행정 소비 없이 단기간에 지역 홍보·관광 및 소비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 이는 텅 빈 공간만 있는 실내스튜디오보다는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세트장이나 건축물을 조성한 야외촬영지에서 부각되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유휴시설을 촬영지로 활용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최근 부산에서는 1980년대 대통령 별장으로 지어져 1만 8천여 평이나 되는 넓은 부지를 보유한 부산시장 관사를 개방해 촬영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촬영지이며 그 외에도 드라마, 영화, OTT 등 대형 콘텐츠 촬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이우영, 2022.12.8.).

다섯째, 제작 인프라인 촬영소를 설립함으로써 이를 중심으로 산업의 집적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대전지역에서는 특수영상 콘텐츠의 기획-제작-후반작업 등에 걸쳐 Total Solution 제공이 가능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특히 스튜디오 큐브와 연계하여 전문 제작사 유치 및 첨단영상시설 집적화를 통해 중부권의 영상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부산에는 이미 센텀지역 일대에 영화·영상관련 기관들이 조성되어 있고 인근 지역에 부산영화촬영소스튜디오 및 아시아영화 학교 등도 함께 구축되어 있어 영화·영상도시 클러스터화를 위한 연계 협력이 가능하다(윤지영 외, 2021).

영화·영상산업의 제작 인프라이자 핵심시설인 촬영소의 설립은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된 영상산업의 편중 현상을 해소할 뿐 아니라 지역의 산업적 효과 및 관광, 집적효과 등을 유발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비록 산업특화도 분석에서 부산지역의 영상산업 관련 분야 입지계수는 높지 않으나 이는 사실상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상대적 특화도를 보이는 지역이 없으며, 지역별 매출액이나 종사자 수 등 활용 측면을 고려하면 부산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영상산업 분야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부산이 기보유한 산업적 역량을 고려했을 때, 부산촬영소의 설립은 지역산업생태계를 활성화 시키며 부산의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4. 부산촬영소 건립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부산촬영소 건립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사업비를 지출함으로써 해당 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를 통해 연관 산업들의 생산·부가가치·고용 창출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 촬영소 건립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부산지역은 물론 전국단위에서 나타난다. 이는 한 지역의 수요변화가 해당 지역과 경제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다른 지역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수요가 발생한 지역으로 다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연관분석을 기반으로 부산촬영소 건립에 따른 종합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했다.

가. 분석방법

부산촬영소 건립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5년 지역간 투입산출표(IRIO:Inter-Regional Input-Output Tables)’를 이용해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했다. 2015년 지역간 투입산출표는 17개 시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83개 중분류 산업을 기준으로 분석했다³⁾.

산업연관분석은 전 산업에서 최종수요가 변화할 때 경제 전체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수요 모형(demand-side model)에 기반한다. 이는 특정 산업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면 변화된 상황에 따라 생산에 필요한 투입이 공급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지역산업연관분석도 마찬가지이며, 수요모형은 기본적으로 각 지역과 각 산업의 수요·공급 균형식을 행렬 형태로 방정식을 세워 도출한다.

구체적으로 두 품목 i, j 를 각각 생산하는 두 지역 r, s 를 행렬형태로 작성하면 <식 1>과 같은 형태이다. X_i^r 은 r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 i 의 총투입액을 의미하고, Z_{ij}^{rs} 은 r 지역에서 생산된 품목 i 가 s 지역의 품목 j 생산을 위해 수요되는 중간투입액, Y_i^{rr} 은 r 지역에서 생산된 품목 i 의 r 지역에 배분되는 최종수요액, Y_i^{rs} 는 r 지역에서 생산된 품목 i 의 s 지역에 배분되는 최종수요액을 의미한다.

$$\begin{bmatrix} X_i^r \\ X_j^r \\ X_i^s \\ X_j^s \end{bmatrix} = \begin{bmatrix} Z_{ii}^{rr} & Z_{ij}^{rr} & Z_{ii}^{rs} & Z_{ij}^{rs} \\ Z_{ji}^{rr} & Z_{jj}^{rr} & Z_{ji}^{rs} & Z_{jj}^{rs} \\ Z_{ii}^{sr} & Z_{ij}^{sr} & Z_{ii}^{ss} & Z_{ij}^{ss} \\ Z_{ji}^{sr} & Z_{jj}^{sr} & Z_{ji}^{ss} & Z_{jj}^{ss} \end{bmatrix} + \begin{bmatrix} Y_i^{rr} \\ Y_j^{rr} \\ Y_i^{sr} \\ Y_j^{sr} \end{bmatrix} + \begin{bmatrix} Y_i^{rs} \\ Y_j^{rs} \\ Y_i^{ss} \\ Y_j^{ss} \end{bmatrix} \quad \langle \text{식 1} \rangle$$

<식 1>의 중간투입액을 각 지역(r, s)의 총투입액으로 나누어 지역투입계수 $a_{ij} (= Z_{ij}/X_j)$ 를 구하고, 이를 국산투입계수로만 이용할 경우 축약된 행렬식은 <식 2>이며 이를 X 에 대해 풀면 <식 3>이 된다. 지역산업연관 수요모형 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 <식 3>을 이용한다. I 는 주대각원소가 1, 다른 원소는 모두 0인 단위행렬이며, $(I - A^d)^{-1}$ 은 산업간 생산유발계수행렬로서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 시 각 지역 및 산업부분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산출액을 의미한다. 특정산업에 대한 최종수요(Y^d)가 주어진다면, 각

3) 2015년 지역간 투입산출표의 총거래표는 소분류까지 있으나 취업유발효과를 도출하기 위한 고용표가 중분류까지만 분류되어 있어, 동일한 수준에서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중분류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생산해야 할 산업별 산출액(X)을 도출할 수다.

$$X = A^d X + Y^d \quad (\text{단, } A^d = [a_{ij}] : \text{지역간 국산투입계수행렬}) \quad \langle \text{식 2} \rangle$$

$$X = (I - A^d)^{-1} Y^d \quad \langle \text{식 3} \rangle$$

생산유발계수행렬 $(I - A^d)^{-1}$ 에 부가가치 투입계수를 곱할 경우 부가가치유발계수가 산출되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V 는 지역별·산업별 부가가치액을 의미하며, 부가가치투입계수는 $A^v = V/X$ 로 산출되고, \hat{A}^v 는 대각행렬을 의미한다.

$$V = \hat{A}^v (I - A^d)^{-1} Y^d \quad \langle \text{식 4} \rangle$$

산업별 취업계수($l = L/X$)를 대각행렬로 하는 \hat{l} 을 구하고 이를 생산유발계수행렬 $(I - A^d)^{-1}$ 에 곱하여 지역별·산업별 고용유발액을 산출할 수 있다.

$$L = \hat{l} (I - A^d)^{-1} Y^d \quad \langle \text{식 5} \rangle$$

나. 분석의 전제

부산촬영소 건립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초기 수요와 생산액이 투자에 상응하는 만큼 증가한다고 본다. 이는 산업연관분석이 근간하는 수요모형의 경우 투자액에 상응하는 정도의 산업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영화진흥위원회의 부산촬영소 건립 사업비는 총 660억 1,400만 원이며 이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산업에 투자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각 지출항목은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산업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촬영소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이는 촬영소에 대한 산업분류가 부재하기 때문인데 기능적인 의미에서 촬영소 혹은 실내스튜디오는 영화, 방송 프로그램 등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공간 및 시설 일체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영상물을 제작·배급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운영되는 곳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부산촬영소 건립”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촬영소를 구성하고 있는 영역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촬영소의 구성적 정의를 “영상 촬영을 목적으로 통신·조명·냉난방 시설 및 기기 등으로 구성된 실내 공간 혹은 독립된 건축물”로 정의하고자 한다. 구성적 정의를 바탕으로 부산촬영소 관련 산업을 전기 장비,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통신서비스, 과학기술 및 기타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등 5개의 중분류로 구성하고 지출항목에 따라 산업을 분배했다.

* 관련산업은 부산촬영소의 구성적 정의를 기반으로 산업연관분석의 산업분류(중분류)에 입각한 것이며 분석 목적에 따라 재분류가 가능하다.



〈표 15〉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산업별 투자금액 전제

(단위: 백만 원)

지출항목		금액	관련 산업
일반용역비		411	사업지원서비스
건설비	기본조사설계비	63	과학기술 및 기타 전문서비스
	실시설계비	2,582	과학기술 및 기타 전문서비스
	공사비	58,822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감리비	3,750	과학기술 및 기타 전문서비스
	시설부대비	386	전기장비, 통신서비스

산업 간의 파급효과를 명료하게 파악하기 위해 부산촬영소 관련 산업을 포함한 총 82개의 중분류 산업을 21개 산업으로 통합해 분류했다. 촬영소의 기능적 정의에 따라 산업적 관련성이 가장 높은 영상·오디오물 제작 배급을 하나의 산업분류로 도출했고, 농림수산물과 광산품을 통합해 농림수산 및 광산품으로 분류하고,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종이, 인쇄, 기타 제조업 제품을 하나의 산업분류인 '소비재'로,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1차 금속제품, 금속가공제품도 '기초소재제품' 등으로 통합했다.

〈표 16〉 산업의 통합 및 재분류

산업 재분류	산업연관표 해당 부분4)
1 농림수산 및 광산품	A 농림수산물 B 광산품
2 소비재	C01 음식료품, C02 섬유 및 가죽제품, C03 목재 및 종이, 인쇄, C13 기타 제조업 제품
3 기초소재제품	C04 석탄 및 석유제품, C05 화학제품, C06 비금속광물제품, C07 1차 금속제품, C08 금속가공제품
4 조립가공제품	C09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37 전기장비 제외), C10 전기장비, C11 기계 및 장비, C12 운송장비, C14 제조 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5 전력 및 가스	D 전력, 가스 및 증기
6 수도	E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서비스
7 건설	F 건설(50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제외)
8 도소매 및 음식숙박	G 도소매 및 상품 중개서비스, I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9 운송서비스	H 운송서비스
10 통신서비스	J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59 통신서비스, 64 영상·오디오물 제작 배급 제외)
11 금융 및 보험	K 금융 및 보험서비스
12 부동산	L 부동산 서비스
13 사업서비스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N 사업지원 서비스(72 과학기술 및 기타 전문서비스, 74 사업지원서비스 제외)
14 공공행정 및 국방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15 교육	P 교육서비스



산업 재분류		산업연관표 해당 부분4)
16	보건 및 사회복지	Q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17	문화서비스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18	수리업 및 기타서비스	S 기타서비스
19	기타	T 기타
20	영상·오디오품 제작 배급	64 영상·오디오품 제작 배급
21	촬영소	37 전기장비, 50 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59 통신서비스, 72 과학기술 및 기타 전문서비스, 74 사업지원서비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연관분석은 사업추진 지역인 부산 지역과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부울경 지역 그리고 전국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다. 파급효과 분석 결과

부산촬영소 건립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 약 1,303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50억 원, 고용유발효과 888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지역인 부산에서는 생산 837.51억 원, 부가가치 374.03억 원, 고용 약 650명이 창출되어 전체 파급효과 중 생산유발효과의 64.26%, 부가가치발효과의 67.92%, 고용유발효과의 73.15%가 부산에서 유발된다. 부산-울산-경남을 합한 부울경 지역에서는 이보다 약간 더 상회해 생산액 949.76억 원, 부가가치 413.08억 원, 고용 약 700명이 유발될 것으로 나타나며, 전체 파급효과에서 생산은 72.87%, 부가가치는 75.01%, 고용은 78.75%가 부울경 지역에서 유발된다.

〈표 17〉 부산촬영소 건립의 지역별 경제적 파급 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액(억 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억 원)	지역별 비중(%)	취업자 수(명)	지역별 비중(%)
전국	1303.34	100.00	550.70	100.00	888.83	100.00
부산	837.51	64.26	374.03	67.92	650.14	73.15
부울경	949.76	72.87	413.08	75.01	699.97	78.75
서울	75.78	5.81	38.53	7.00	63.08	7.10
인천	23.18	1.78	8.54	1.55	11.48	1.29
경기	85.10	6.53	33.12	6.01	46.85	5.27
대전	4.57	0.35	1.93	0.35	3.50	0.39
세종	2.13	0.16	0.72	0.13	0.69	0.08
충북	19.66	1.51	6.89	1.25	7.91	0.89
충남	30.61	2.35	9.38	1.70	8.43	0.95

4) 산업분류는 기본적으로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83개 산업을 모두 분류하는 것은 가독성이 떨어져 대분류 기준으로 작성하였다(알파벳 기호로 구분). 각 분류에서 제외한 산업과 재분류된 산업인 '촬영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분류로 인식했다(10단위 숫자 기호로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유발액(억 원)	지역별 비중(%)	유발액(억 원)	지역별 비중(%)	취업자 수(명)	지역별 비중(%)
광주	4.59	0.35	1.70	0.31	3.04	0.34
전북	15.00	1.15	4.74	0.86	5.80	0.65
전남	27.68	2.12	8.29	1.51	7.36	0.83
대구	10.76	0.83	4.28	0.78	7.73	0.87
경북	39.70	3.05	12.95	2.35	14.30	1.61
강원	12.77	0.98	5.55	1.01	6.77	0.76
제주	2.05	0.16	1.01	0.18	1.93	0.22

산업별로 보면, 부산지역에서는 투자자금이 직접 투입되는 촬영소(697.96억 원) 외에도 기초소재제품(49.16억 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22.59억 원), 운송서비스(12.27억 원), 조립가공제품(10.14억 원)에서 생산유발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부가가치는 촬영소에서 315억 원이 유발되며 기초소재제품(14.02억 원)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12.45억 원)에서도 다른 산업대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촬영소 설립으로 인해 부산지역에서 약 545명의 취업자가 발생하고 그 다음으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약 47명, 기초소재제품에서 약 32명, 운송서비스에서 약 24명의 취업유발효과를 보인다.

부울경 지역에서의 산업별 파급효과는 촬영소의 생산유발액은 710.61억 원으로 부산지역과 큰 차이가 없으나, 기초소재제품에서 부산보다 월등하게 많은 115.42억 원의 생산액을 창출한다. 부울경 지역의 산업별 부가가치는 촬영소에서 322.41억 원 발생하며 기초소재제품 337.37억 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에서 15.1억 원으로 부산지역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난다. 취업효과는 촬영소에 약 553명이 나타나고 부산지역과 마찬가지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약 47명), 기초소재제품(약 32명), 운송서비스(약 24명) 순으로 발생한다.

이를 전국단위에서 보면, 촬영소의 생산유발효과는 762.09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49.6억 원, 취업유발효과 약 592명으로 추산된다. 이외에도 본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기초소재제품, 조립가공제품, 도소매 및 음식숙박, 소비재, 사업서비스, 운송서비스 등에서 생산 및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표 18〉 부산촬영소 건립의 산업별 경제적 파급 효과

(단위: 억 원, 명)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부산	부울경	기타	전국	부산	부울경	기타	전국	부산	부울경	기타	전국
농림수산 및 광산품	1.21	3.51	8.50	12.01	0.58	1.85	4.97	6.81	0.52	2.02	6.31	8.33
소비재	9.64	15.86	27.81	43.67	2.61	4.24	7.42	11.67	5.99	8.54	12.93	21.47
기초소재제품	49.16	115.42	129.95	245.37	14.02	33.37	37.61	70.98	15.75	31.72	27.81	59.53
조립가공제품	10.14	19.44	31.70	51.14	3.71	6.50	10.71	17.21	5.32	9.07	12.37	21.44
전력 및 가스	5.87	8.09	10.11	18.21	2.96	3.74	3.93	7.68	0.54	0.76	0.78	1.53
수도	1.08	1.79	2.41	4.20	0.63	0.98	1.18	2.17	0.74	1.20	1.57	2.77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부산	부울경	기타	전국	부산	부울경	기타	전국	부산	부울경	기타	전국
건설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도소매 및 음식숙박	22.59	28.05	30.55	58.60	12.45	15.10	14.87	29.96	37.47	46.66	40.72	87.38
운송서비스	12.27	15.63	16.13	31.76	5.57	7.04	7.04	14.09	18.41	23.79	19.60	43.40
통신서비스	0.75	0.86	7.08	7.95	0.34	0.39	3.67	4.06	0.71	0.81	4.29	5.10
금융 및 보험	10.57	11.48	10.40	21.88	6.69	7.27	6.59	13.86	4.97	5.40	4.05	9.45
부동산	4.28	4.89	5.34	10.23	3.05	3.48	3.82	7.30	2.98	3.36	2.79	6.15
사업서비스	6.58	7.64	17.17	24.81	3.12	3.62	6.30	9.92	4.11	4.67	9.58	14.26
공공행정 및 국방	0.23	0.28	0.24	0.52	0.20	0.23	0.18	0.42	0.23	0.28	0.20	0.47
교육	0.26	0.35	0.29	0.64	0.19	0.25	0.20	0.45	0.34	0.45	0.37	0.83
보건 및 사회복지	1.47	1.73	0.81	2.54	0.75	0.88	0.41	1.29	1.34	1.58	0.71	2.29
문화서비스	0.85	1.03	1.20	2.24	0.47	0.58	0.66	1.24	1.04	1.32	1.38	2.70
기타서비스	2.15	2.54	1.66	4.19	0.95	1.12	0.74	1.85	4.90	5.72	3.59	9.31
기타	0.42	0.51	0.41	0.9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영상·오디오물 제작 배급	0.04	0.04	0.33	0.37	0.01	0.01	0.12	0.14	0.03	0.04	0.19	0.23
촬영소	69796	71061	51.48	76209	31575	32241	27.19	34960	54474	55257	39.61	59218
총계	83751	94976	35358	13034	37403	41308	13762	55070	65014	69997	18887	88883

* 기타지역은 부울경을 제외한 14개 지역(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강원, 제주)을 의미함

현재 부산 영상촬영소는 건립비 상승으로 인해 촬영소의 핵심시설인 실내스튜디오만 구축하는 것으로 규모가 조정되었다. 당초 계획대로 후반제작시설까지 구축된다면 원스톱 제작환경으로서 촬영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어서 이후에라도 후반작업 시설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통한 부산촬영소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촬영소의 구성적 정의에 따라 촬영소의 '설립'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중점적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계획된 규모보다 축소된 실내스튜디오 건립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설립 이후 실질적인 운영에 따른 파급효과는 분석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시설 확충을 위한 추가 건립 및 촬영소의 운영까지 고려한다면 부산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욱 크고 장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영상제작 인프라이자 영화·영상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주요 시설로서 부산촬영소 건립의 사회·문화·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수도권에 집중된 영상산업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산의 영상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현재 OTT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영상산업 환경에서 영상제작의 핵심 인프라인 촬영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촬영소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어 지역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전국 실내스튜디오의 84%는 수도권에 있으며, 나머지 비수도권 지역의 스튜디오 중 단 2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어 지역 내 영상제작은 사실상 공공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촬영소는 영상물 제작이라는 기능적인 측면 이상으로 영상산업에 핵심적 역할을 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된 영상제작 산업과 인력을 지역에 분산시키고 지역 자원 활성화를 가능케 하기에 지역 균형발전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촬영소는 그 자체로 지역홍보가 가능하며 로케이션, 관광 등 다른 산업과 연계해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부산은 다른 지역 대비 로케이션 촬영이 활발한데 유사한 규모의 실내스튜디오를 보유한 대전과 전주를 비교했을 때도 월등히 많은 촬영이 실시되고 있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촬영을 위해 로케이션 촬영과 지역 스튜디오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는 부족한 인프라의 한계로 인해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장기 대관하는 실내스튜디오 촬영과 로케이션의 연계는 지역 내 소비 증가와 함께 지역산업 활성화, 인력 양성, 지역의 인식제고 등 로케이션 산업의 사회적 영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작품이 흥행한 후 촬영한 지역의 세트장이나 촬영지를 보기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콘텐츠 투어리즘의 효과가 발생하며, 특히 일반인 관람이 허용된 야외촬영지에서 더욱 부각된다. 지자체는 촬영 종료 후 관광시설로 운영하며 각종 행사 및 축제를 개최하거나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수익을 높이기 위해 지역홍보 및 관광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부산촬영소는 지역의 영상산업 강화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경제적 차원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특성상 영상제작업은 영세기업이 다수 포진하고 있기에 영화 및 TV프로그램 제작은 지역사회 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 내 서비스 산업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게 된다.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촬영소 건립의 생산유발효과는 837.51억 원, 부가가치액은 374.03억 원을 유발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효과도 약 889명 수준을 보인다. 그 외에도 도소매 및 음식숙박 산업, 사업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에서 다른 산업대비 높은 수치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본 경제적 파급효과에는 부산촬영소 건립에 초점 맞추어 운영으로 인한 효과는 제외되었으나, 부산촬영소가 설립된 후 운영되는 한 부산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욱 확장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부산스튜디오는 대규모 세트장 건립이 가능한 대형 스튜디오를 포함하고 있어 규모 면에서도 지역뿐만 아니라 국내 영상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오징어 게임>은 거대한 세트장을 구축하기 위해 대전 스튜디오 큐브 외에는 대안이 부족했으나, 부산촬영소가 건립된다면 대작 스케일의 영화 및 드라마 제작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지난 여름에 개봉한 <한산: 용의 출현>도 거북선 세트를 세울 수 있는 평수와 높은 층고를 보유한 실내스튜디오를 확보하기 어려워 강릉 스피드스케이트장에서 촬영을 했다. 그럼에도 <한산: 용의 출현>은 물에 배를 띄운 적 없이 모든 해상 장면에 VFX 기술을 적용해 촬영했으며, 실내 촬영이 가능한 덕분에 후속작까지 한 번에 촬영함으로써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조



지영, 2022.7.14.). 이러한 사실감 높은 영상 제작을 위한 대형 세트, VFX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크로마 키 활용이나 방음 시설 등이 포함된 대형 실내스튜디오가 구축된다면 제작사들은 더욱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 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마지막으로 한류의 인기와 영상산업의 급부상으로 인해 영상산업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부상하고 부산시는 영상도시 발전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촬영소가 지역의 산업적 성장동력으로 기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への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영상산업 분야 기업 유치 전략으로 OTT 전용 혹은 특정 기업 전용 스튜디오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최근 CJ ENM은 경기 파주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제작 인프라를 갖춘 'CJ ENM 스튜디오 센터'를 개관했다. 1,600평의 대형 스튜디오 및 특수촬영 전용 스튜디오를 포함해 총 20여개의 대단위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제작과 관람이 가능한 오픈세트 등을 포함하고 있다. CJ ENM은 매년 수십 편에 달하는 제작 수요를 고려할 때 파주에 추가로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했고, 스튜디오 센터가 수용할 수 있는 콘텐츠 편수를 연간 20편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채윤정, 2022.11.2.). 수도권에 집중되어 사실상 클러스트화된 영상산업을 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규모 있는 기업의 활동이 있어야 한다. 전용 스튜디오 건립을 통해 기업은 제작의 여유와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고 부산시는 기업의 지역 내 소비 및 인력충원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부산 부산촬영소에는 실내스튜디오만 건립될 계획이지만, 추후 후반작업 시설 등 윈스톱 제작 환경을 구축해 영화·영상 제작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환경까지 마련된다면 부산이 영상산업을 선제적으로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자 지역경제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 주요한 거점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보고서

- 권태현(2020). 산업연관분석. 서울:도서출판 청람.
- 김길훈·김건(2009). 로케이션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연구: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따른 로케이션 사업 대안제시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14), 47-65.
- 김길훈·정진욱. (2010). 영화·드라마 촬영 기반시설의 활성화 방안 연구: 전주영화종합촬영소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19), 327-348.
- 김도학, 김은경, 우혜경, 변현수(2011). 지역영상위원회 경제효과 평가모델 연구. 부산:영화진흥위원회
- 김영수·박재곤·정은미(2012). 산업융합시대의 지역산업생태계 육성방안.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625.
- 김용희(2021). “OTT플랫폼 시장의 현황 및 전망”.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아키스브리핑 제 279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정호·김재성.(2012). 영화진흥위원회 부산 이전과 부산영화 산업.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2(11),88-99.
- 김한도(2008). 경남지역 영화·드라마 촬영지 실태분석 및 정책방안. 정책포커스 이슈분석,1-37.
- 오하영·이상규(2021). 「플랫폼 환경변화에 따른 영상콘텐츠 진흥정책 연구」. 서울: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윤지영·정문섭·우석봉·이정훈(2021). 「부산 영화·영상 클러스터화를 위한 연계 협력 방안」. 부산:부산연구원
- 이성민(2022). OTT로 인한 콘텐츠 제작/유통 시스템의 변화: 스튜디오 시스템을 중심으로, Media Issue & Trend. Vol.51
- 임석봉(2022.6.29.), OTT 콘텐츠 전략: 국내·외 주요 OTT플랫폼 중심. 문화매력국가 선도 K-콘텐츠·OTT 진흥포럼. 문화체육관광부. 서울.
- 정수희·이병민(2020). 콘텐츠투어리즘의 구성요소와 한국형 모델 연구. 문화콘텐츠연구 제18호. 건국대글로벌문화연구소
- 차민철(2021.12.). 「포스트 시네마 시대 지속가능한 부산 영화·영상·미디어 거버넌스 모델에 관한 연구」. 부산연구원
- 최정수(2007). 경북 영상 로케이션 산업 활성화 방안: 경북영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0(2), 116-136.
-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2).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한국콘텐츠진흥원(2021), 「2020 지역콘텐츠산업 및 창작자 실태조사」
- 한국콘텐츠진흥원(2022). 「2021 방송영상 산업백서」



인터넷 기사

- 김대엽(2022.7.24.), 법원 감정이 절반에 낙찰 받았지만 사업 재개 않고... 경주 힐튼호텔, 신라밀레니엄파크 호텔 인수하고 수년째 방치, 영남경제신문.
<https://www.yn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3507>
- 김성대(2022.11.01.), '부산시, '내셔널 지오그래픽 트래블러' 최고 여행지 35에 선정'. 울산매일.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1971>
- 김은영(2022.10.3.). 부산 알린 '부산행', 부산 안 나오지만 부산서 찍었다 [新 문화지리지 2022 부산 재발견] 3. 부산일보.
<https://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100317251211948>
- 김종철(2019.5.29.) 애플단지로 전략한 '석불산 영상랜드' 철거된다, 부안독립신문.
<https://www.ibu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5260>
- 김창우(2021.4.14.). [K-콘텐츠 전성시대] 2. 콘텐츠 산업 열악한 인프라 환경.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9331>
- 박종진(2022.7.5.) "[르포]CJ ENM 파주 스튜디오 센터...콘텐츠 전진기지' 베일 벗었다",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20705000239>
- 박준호(2022.3.6.). [서경이 만난 사람] 조현래 원장 "콘텐츠 핵심은 인력·인프라·자금...획기적 지원해야 한류열풍 지속".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B9TW5JL>
- 박형준(2022). "박형준 부산시장,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만들겠다". 더 팩트. 2022.7.1.
- 부산광역시 보도자료(2022.4.14.). - '시민의 힘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 제26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 부산시, 레디 액션!(Ready A.C.Tion!) 부산 콘텐츠산업 발전전략 크랭크인.
- 이승륜(2021.6.20.), '미스터 션샤인' 그 호텔이 카페로...세트장 실내 활용 가능해야 팬 유입,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20210621.22016005798>
- 이왕수(2021.11.16.) 울산 울주군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소송으로 철거 중단, 경상일보.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8591>
- 이우영(2022.12.8.). [단독] '재벌집' 된 부산시장 관사...드라마·영화 촬영지로 뒀다. 부산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87799?sid=103>
- 이정용(2017.9.29.). '9억 투입한 '오수정 세트장'... 수천만원 들여 철거하는 인천 중구',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7673>
- 조지영(2022.7.14.). "물 없는 최초의 해전 촬영"...'한산' 올림픽 경기장에 설치한 실내 세트장 '화제'. 스포츠조선
https://www.chosun.com/entertainments/entertain_photo/2022/07/14/ZLUXA4AWREHXUMBWM3R6PM7FYU/



- 채윤정(2022.11.2.). 7조 시장 형성할 버추얼 스튜디오...기업 경쟁 뜨겁다. 메트로신문.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21102500194>최수진(2021.5.31.),
- ‘5년간 5조 투자’ CJ ENM “티빙, 국내 1위 OTT 만들 것”, 더팩트.
<https://news.th.co.kr/read/economy/1864628.htm>
- The Wall Street Journal(2021.12.28.). In Hunt for Next ‘Squid Game,’ Streaming Services Battle for South Korean Shows.
<https://www.wsj.com/articles/in-hunt-for-next-squid-game-streaming-services-battle-for-south-korean-shows-11640687405>

kofic 영화진흥위원회